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시

2023. 08. 2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다 같이

-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성령 인도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3장 3-18절

다 같이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봉독 말씀이 긴 관계로 대표 말씀만 기재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전체 구절을
찾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아내를 잃을 뻔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는 꽤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조카인 롯도 삼촌 못지않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재산이 너무 많아 그들이 거주했던 네게브 땅에서 동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대책을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었고 그 갈림길에서 선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똑같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람의 선택은 영생을 위한 생존이었고 롯의 경우는 일시적인 삶을 위한 생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브람의 선택은 참으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탁월한 선택을 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탁월한 선택을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탁월한 선택의 기준은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벧엘과 아이 사이의 지역은 인간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최적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기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본문은 거주하는 초기부터 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소유가 그들의 마음조차도 여유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끝내 이 두 사람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었고 가나안 원주민도 그 분쟁에 합세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삼촌으로서 신앙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신들은 한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우선권은 조카인 롯에게 양보합니다. 얼핏 보기에 아브람의 제안이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그저 모두를 죽이는 생존 방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상생하고자 하는 방법은 진정한 생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존방식으로 경쟁을 당연히 여깁니다만 멸망의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이면에는 인간의 정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정한 생존, 상생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을 볼 수 있는 깊이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탁월한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안목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10]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조카 롯은 아브람이 선택의 우선권을 주자 두말하지 않고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우선은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안목으로만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선택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곳은 물도 많고 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곳이 여호와와 동산 곧 에덴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롯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것이고, 그곳은 인간들의 정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들어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들은 안목의 정욕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할 것을 선택하다가 파멸의 길로 나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탁월한 선택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결국 아브람이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준 것과 그가 가나안 땅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 아브람이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창 12:1-3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승낙이 있기까지 기다린 끝에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를 불러 세워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아브람이 선택한 결과는 그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과 연결됩니다. 가나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선택의 기준을 본문의 아브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을 피하고 안목의 정욕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명문 가정이 되시는 선택을 통해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브람과 같이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 원합니다. 육체의 안목을 따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그동안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2. 현재 선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나요? 가정과 함께 나누고 믿음 안에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시다.

중보기도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예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